

남성주의적 자기표현의 카타르시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이단아적 리더십의 성격*

이정환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는 현대일본 사회에서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려온 동시에, 전후일본 정치체제 내에서 비주류로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시하라는 『태양의 계절』을 통해 보여주었던 기성 제도에 대한 저항적 자세의 이미지를 정치활동 내내 유지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지속시켰다. 이시하라의 이러한 저항적 자세는 그가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도정치권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연결된다. 배타적 자국중심적 정치적 사고의 남성주의적 성향을 지닌 이시하라가 일본 사회에 수용되는 것은 일본의 많은 대중들이 기성 질서의 파괴에 대해 암묵적 지지를 하고 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하라는 자기표현이 힘든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남성주의적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성 질서 파괴의 성향은 이시하라가 이단아적 성향으로 손쉽게 얻어낸 대중의 지지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던 정치적 성공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주제어: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보수주의, 정치이단아, 자기표현, 남성성

* 본 연구는 2012년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I) 맥아더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MacArthur 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 과정에 도움을 주신 손열, 이원덕, 남기정, 박철희 네 분 교수님, 현대일본학회 일본리더십 연구팀 참여 선생님들, 그리고 두 분 심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I. 서 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는 현대 일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이단아적 존재이다. 그는 정치에 입문한 후 높은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면서도, 기성 정치질서의 통치체계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왔다. 1968년 최고득표율 속에 참의원에 당선된 후 25년 이상의 의원 생활과 1999년 첫 당선된 후 4선의 도쿄도지사 재임 성공은 현대일본에서 이시하라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화려한 정치경력에 비해 그의 기성정치질서 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자민당 의원 생활 동안 자민당 주류와는 거리가 있었던 이시하라는 그의 보수적 사상을 뒷받침할 토대를 보수정치집단 내에서 확고하게 구성해 내지 못했다. 그는 통치자의 경험보다는 체제비판의 아웃사이더적 경험을 통해 명성을 쌓아왔다. 본 논문은 이시하라가 일본 사회에서 높은 인기 속에 수용되는 원인과 또한 그가 기성정치질서 내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는 한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시하라를 자국중심적 우익인사로 정의하고 그러한 우익적 정치이념을 그의 인기 배경으로 간주하면, 이시하라적 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의 가능성을 매몰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그는 분명 현대일본의 배타적 자국중심주의적 보수의 아이콘이다. 이시하라는 전후체제의 근간인 평화헌법에 대해 강렬하게 비판하며 핵무장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폄하하면서 일본 중심의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무시의 발언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그의 배타적 자국중심주의의 정치이념은 그가 일본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되어 온 것에 비해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여왔다. 따라서 이시하라의 현대일본에서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배타적 자국중심주의적 성향을 넘어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시하라를 우익의 아이콘으로서만 해석하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시하라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이

시하라의 정치적 이념의 성격이다. 본 논문은 이시하라의 정치적 이념을 자국중심적 우익적 성향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남성주의적 성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이시하라의 정치적 이념의 대중전달 기법이다. 본 논문은 이시하라가 정치의 본질을 자기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질서와 제도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의 의미이며, 이시하라의 이러한 자기표현의 정치기법이 전후체제의 경직성에 눌러있는 일본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한다. 즉 본 논문은 이시하라의 ‘남성주의적’ 정치이념이 ‘자기표현’의 정치기법을 통해서 일본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일본 대중들은 이에 대해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에 이시하라가 일본 사회에서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논문은 이시하라의 자기표현의 거친 성격이 그가 제도정치권 내에서 주류로 자리잡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동했음을 또한 주장한다. 이시하라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는 안과 밖 모두에서 팍 짜여 있는 전후체제 특히 관료지배의 숨막히는 성격에 대한 대중의 변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리 보면 유기적으로 매우 완성도 높게 조직화된 전후체제를 뒤흔들 변혁의 시도는 유신과 같은 체제전복이 아니면 달성되기 어렵다. 이시하라의 정치적 사고가 현실 정치무대에서 가지는 한계는 이 부분에서 출발한다. 그는 체제전복이 아닌 제도보수권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비판적 사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보수 주류는 이시하라적 정치 인식에 의해 잠식될만큼 취약하지 않았다. 그의 정치 활동은 우익의 체제전복적 사상과 제도보수권의 안정적 통치질서 사이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시하라의 리더십을 남성주의적 자기표현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이단 아적 리더십으로 정의하는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시하라 정치적 사고의 성격을 현대 일본의 보수와 우익의 길항 구도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그의 정치적 사고의 발전의 주된 시점이 되는 1960~70년대의 이시하라의 정치적 노정을 살펴볼 것이고, IV장에서는 중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쿄도지사직에 도전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실천하면서, 총리

취임의 대망을 꿈꾸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이시하라의 부침에 대해 다를 것이다. V장에서는 이시하라의 정치수법의 성격을 밝히고 그것이 일본에서 수용되는 배경으로서의 정치불신의 여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II. 전후 일본 보수주의의 구도에서 이시하라 신타로의 위상

1. 전후 일본의 보수와 우익

전후 일본정치는 일본의 국제정치적 자리잡기와 역할에 대한 보수와 혁신의 갈등 구조 속에서 발전하여왔다. 미일안보동맹에 입각한 냉전구조에서 일본의 자리잡기에 대한 논쟁이 보수와 혁신의 핵심 갈등이었다(박철희, 2011c: 102-112).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경제정책적 대립은 보수와 혁신의 갈등 구조보다는 자민당이 개발지향적 산업정책과 이익유도정치를 통한 선별적 재분배정책을 모두 주도하면서 보혁대립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보혁 대립구도만으로는 보수와 혁신의 각각의 범주 안에서의 다양성과 내부적 갈등을 고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보혁 대립구도의 관점은 혁신에 대한 대항의 개념으로 ‘보수우익’을 사용하면서 보수와 우익을 구별하지 않고 일본의 정치담론을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박철희, 2011b: 2). 보수와 우익은 일본의 전후체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 보수와 우익을 차별화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제도보수권 내에서 우익적 사고를 발신하는 이시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제도정치권의 보수는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 리버럴과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군사적 역량을 회복하고자 하는 보수 우파의 항쟁 속에 발전하여왔다(박철희, 2011c: 96-101).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는 이러한 구분을 경제파와 통치파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경제성장에 집중하지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와 그의 정치적

선택을 충실하게 이행한 요시다 사관학교의 우등생, 이케다 하야토(池田隼人)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를 경제파로, 미일동맹의 전면적 변화를 피하지는 않지만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를 꾀했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와 미국의 재무장 요구를 기회 삼아 헌법개정과 재군비를 구상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통치파로 구분하고, 나카소네 자신은 통치파에 속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209). 1960년 안보투쟁 후 보수 리버럴(경제파)은 1960년대 자민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이러한 보수 리버럴의 주도권에 대한 보수 우파의 대립이 중일국교정상화와 대만과의 국교단절이 벌어졌던 1970년대 초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내각 시절에 격화되었다. 제도보수권 내에서 보수 리버럴과 보수 우파의 논쟁은 미일동맹 중심의 전후체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속에서 일본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기반을 둔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우익은 제도보수권에 의해 유지되는 전후체제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였다. 물론 전후 초기에서 1960년 미일안보투쟁을 거치는 동안의 우익세력은 혁신세력에 대한 대항적 차원에서 제도보수권의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는 길거리 운동세력의 성격을 지닌다. 소음을 내뿜는 가두선전과 폭력단 같은 인상 속에 일반인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우익집단은 1950~60년대 친미반공의 제도보수권의 논리를 대변하면서 천황호호, 반공, 헌법개정을 주로 주장하였다(김채수, 2008: 191-193). 미일동맹 안에서의 헌법개정을 주장했던 보수 우파와 큰 주장의 차이가 없던 순정우익세력과는 달리 1970년대 미일동맹을 포함하는 전후체제 전체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신우익이 우익세력의 중심이 된다. 1968년 신좌익 학생운동에 대한 대항차원에서 등장한 신우익세력은 1970년 즉 미일안보조약의 재개정시기가 오면 다시 혁신세력의 저항운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조직을 개발하는 시도로 성장하였다. <일본학생동맹(日本学生同盟)> 등의 학생조직으로부터 출발한 신우익은 알타-포츠담 회의에 의해 규정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출을 주장하면서 기존우익세력과 차별화하는 이론을 발전시켰다(김채수, 2008: 110-112). 그들은 패전을 가져온 알타-포츠담체제를 타도하여 패전 전의 상태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며 친미반공의 기성우익과는 달리

반미의 논리와 기성보수제도권에 대한 비판의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신우익의 단계에 와서 우익은 미국과 기성제도권에 의해 유지되는 전후체제를 전복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면서 제도보수권과 확실하게 차별화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의 배경에는 1970년 자위대 동부방면 총감부에서 할복 자살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영향이 크다. 신우익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지도자였던 스즈키 쿠니오(鈴木邦男)는 미시마의 죽음 당시에 1965년 이래로 신우익 학생운동을 함께하던 모리타 히쇼(森田必勝)가 자신들과는 달리 전체전복 운동을 지속하여 결국은 미시마와 함께 자신을 희생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미시마와 모리타의 죽음이 1970년대 신우익운동의 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鈴木邦男, 1988).

보혁 대립구도와 보수와 차별화된 우익의 구도는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에서도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혁신 세력이 정치권에서 급속하게 사라지면서 보혁 대립구도는 일본정치의 대립축에서 존재감을 상실하였다. 한편 전후체제 비판의 논리를 지닌 우익은 전후체제의 기틀인 냉전의 와해로 인해 존재이유인 비판대상을 상실하게 된다. 스즈키가 1993년 『탈우익선언(脱右翼宣言)』을 출판하면서 소련의 붕괴로 좌익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주장이 상식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탈우익’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였다(鈴木邦男, 1993). 우익사상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인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도 ‘우익의 종언’을 언급하면서, 우익의 가치가 보수 세력에 의해 충분히 인수되었기 때문에 우익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익의 존재이유가 사라진 1990년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마쓰모토 겐이치, 2009: 271-277).

1990년대에는 제도권 보수가 우익의 사상을 많이 담아내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익적 사상을 담아내는 보수의 주장은 유엔중심적 국제사회공헌론에 대한 대립의 차원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다. 냉전 이전 전후체제의 수용과 부정의 수준에서 구분되던 보수와 우익의 구분은, 199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의 역할론과 자국중심적 국가주의의 보수 내 대립 구도로 변화하였다(Park, 2011: 102). 1990년대의 일본 정부는 유엔중심주의적 관점에 서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여러 차례 사

죄하는 양상을 보인다.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는 이를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에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헌법개정의 정당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渡辺治, 2001). 이러한 유엔중심주의적 일본정부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의 정책은 역사해석이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보수지식인들 사이에 중심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토대가 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 서양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적 차원의 자위적 행위라는 논리를 통해 자학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중심주의와 대립되는 구도로 1990년대 이후의 보수 내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즉 1990년대에 들어오면 전후체제 전체를 비판하고 전복하려던 우익의 운동기반은 약화되었지만, 전후체제의 기반이었던 태평양전쟁의 패전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우익의 논리는 제도보수권 내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2. 제도화된 보수 속에서 전후체제 비판의 한계

이시하라는 전후체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우익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정치활동에서 전후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전후 일본의 보수와 우익의 중간의 위치에서 전후체제에 대한 투덜거림, 조롱, 분노를 넘어서는 전복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제도보수권 내에서 전후체제의 기득권과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가 그의 대중적 인기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시하라의 정치적 사고의 핵심은 ‘사내’답지 못한 인간, 사회, 국가에 대한 분노이다. 그의 인간관, 사회관, 정치관, 국제정치관에서 일관되는 논리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전후 일본의 일본인, 일본 사회, 일본국가는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주체적이어야만 하는 모든 대상이 기본적으로 ‘사내’ 또는 ‘아버지’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石原愼太郎, 1997: 247-249; 2010: 182-185). 아버지 또는 남성을 강조하는 한 모든 인간이 주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버지의 부성에 기대야 하는 가족들과 남성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하는 여성들은 주

체의 대상으로 고민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사내’다워야 하는 대상을 일본인, 일본사회, 일본국가로 한정시키고, 일본의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 사회, 국가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체적 대상의 한계가 일본에 국한되어 있기에 그의 정치관은 자국중심적이다. 즉 이시하라의 자국중심적 사고의 핵심은 ‘사내’답지 못해서 비판되는 대상이 일본인, 일본사회, 일본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외국인과 외국국가들을 주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국인과 외국국가들에 대한 차별적 언급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즉 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동격으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일본에 국한된 논의에서 나오는 파생적 결과의 대상일 뿐이다. 이시하라의 일본 내의 대중적 인기는 그가 외국인과 외국국가들에 각을 세우는 배타적 부분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일본 자체를 비판하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시하라의 전후체제 비판은 일본에게 굴욕감을 주고 주체적 선택을 가로막게 한 미국에 대한 분노에 기초하고 있다.¹ 그는 패전 후 전범재판을 관람했던 중학생 시절의 기억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굴욕적 기분을 느꼈던 것을 자신의 정치적 사고의 출발점이었음을 자주 언급하였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44-45).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으로 인해 군대를 갖지 못하는 일본이 주체적인 국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일본이 군사능력을 배양해서 스스로의 안보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미일동맹에 기초한 전후체제를 긍정하고 이 선상에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을 찾아야 한다는 제도 보수권과는 대립되는 관점이다(Park, 2011: 112-113). 물론 이시하라는 미일협조 자체를 통해 일본이 얻는 이득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신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모두 무정부적 상태로 파악하고, 완벽한 게임의 주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일협조는 굴욕일 뿐이라고 판단한다(Park, 2011: 104-106). 국제정치적으로 주체적 선택을 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이시하라에게 전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할 것을 취하는 신현실주의적 세계관에서 하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에 의거해서 그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 국가로서 당

1. 이시하라의 오랜 친구인 사상가 에토 준(江藤淳)도 전후 일본을 패전에서 오는 ‘상실감’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고자 하였다(Sherif, 2002).

연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파악한다(Park, 2011: 114-115). 이러한 당연한 선택이 일본에게만 문제시되고 자아비판이 강요되는 것이 전후체제의 자기모멸적 성격이며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국제정치관의 핵심적 성격이다.

전후체제의 국제정치적 성격에 대한 이시하라의 비판은 전후체제의 국내 정치적 면으로 연결된다.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취해야 하는 멸사봉공의 자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덕목이고 ‘사내’다움이다. 하지만 이시하라는 전후체제의 주류 정치인과 관료집단은 이러한 멸사봉공의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11: 94-99). 미국의 눈치를 보고, 다양한 사회세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안위에 급급한 것이 전후체제의 일본 국내 정치와 행정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미국을 의식하며 중국에 접근하기 위해 대만과 국교단절하고(1972년), 미국의 요구에 엔화를 평가절상하는 플라자협정을 맺고(1985년), 중국과 한국을 의식하여 과거사를 사죄하는 것은(1990년대) 국가의 위신을 지켜야 하는 정치지도자가 택할 일이 아닌 것이다(石原慎太郎, 1989; 2000; 石原慎太郎·田原総一郎, 2007; 이시하라 신타로, 2004). 또한 국가를 위한 역동적 사고를 갖지 못하고, 소속 성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질서를 내세워 복지부동하는 존재로 관료집단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집단들에 의해 질식되고 있는 전후의 국내질서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石原慎太郎, 1999a).

이시하라는 전후체제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도 비판을 가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후 천벌이라는 그의 발언은 일본사회에서 큰 비판에 직면했다. 여타의 다른 설화와 마찬가지로 정치가/행정가의 입장이 아닌 문예가의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천벌이라는 표현은 그의 일본인에 대한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石原慎太郎, 2011: 126-135). 그의 천벌 발언은 문제가 있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려는 시도 없이 전후체제의 혜택에 안주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전후 일본인들의 나약성을 교육의 문제에서 파악하고 있다. 남성적 주체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고,

하향평준화의 교육을 통해 현대 일본인들이 나약해지고 있다는 논리이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234-235). 전후 일본의 교육에 대한 비판은 남성적 주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성과 질서에 대한 교육이 유년시절부터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복고적 교육관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시하라의 국제정치관, 국가관, 인간관 모두에서의 전후체제에 대한 전면적 비판적 사상은 전후체제의 전복이라는 우익적 실천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 대신 제도정치권 내에 위치하면서 끊임없이 전후체제 비판에 몰두하여 왔고, 이를 통해 제도 보수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제도보수권의 비주류로 머무르고 만다. 이시하라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사이고(西郷)형과 오쿠보(大久保)형으로 구분하면서, 변혁을 체계를 통해 만들어 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를 높이 평가한다(石原慎太郎, 2008: 71-100). 체계를 통해 변혁을 완성하는 오쿠보를 본받고 싶었겠지만, 전복을 일단 실행한 후 체계를 완성하고자 했던 오쿠보와는 달리 이시하라는 전복의 실천이 아닌 비판의 목소리만 기성체제 내에서 보여 주었다. 기성제도의 파괴를 주장하는 우익적 에토스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행동이 부재한 것이 이시하라의 사상과 행동의 괴리이다.

III. 자기표현으로서의 정치

1. 문예와 정치

이시하라의 정치적 사고의 핵심인 남성적 주체성에 대한 강조는 강한 자기애의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삶의 의미를 느끼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이시하라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처음 선택한 것은 문예가의 길이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 후에도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시하라 본인은 이것을 ‘자기표현’이라고 부른다(江藤淳, 2004: 213).

1932년생인 이시하라는 히토쓰바시 대학 재학 중이던 1956년 『태양의 계절』이 아쿠타가와(芥川)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문단에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태양의 계절』에서 드러냈던 사회질서에 대한 정서적 반발과 일탈행위에 대한 찬미적 묘사(이시하라 신타로, 1978)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주장하는 현재의 그의 정치적 성향(石原慎太郎, 1997: 223-237)과는 많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의 문예활동에 일관된 것은 기성질서와 제도에 대한 분노의 자기표현이었다. 『태양의 계절』에서는 그 분노가 대안적 사회와 정치 조직론으로 연결되지 않고, 개인의 충동적 일탈에 대한 탐미적 묘사로 드러난다. 『태양의 계절』이 소설과 영화로 대히트를 치고,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었던 동생 이시하라 유지로(石原裕次郎)가 대중스타로 부상하면서 신타로와 유지로 형제는 일본의 신세대 스타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는 일관되게 기성질서와 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불만의 차원에서 문예 활동을 하였다.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개인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 사회와 정치의 현안에 대한 이시하라의 최초의 참여는 1958년 구성된 <젊은 일본의 모임(若い日本の会)>에의 참가활동이었다(佐野真一, 2003: 317-342).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에토 준(江藤淳), 에이 로쿠스케(栄六輔), 다니카와 타로(谷川俊太郎), 마우즈미 토시로(黛敏郎), 아사리 게이타(浅利慶太) 등의 젊은 문화인들의 모임에 당시의 문학계의 신성이었던 이시하라가 멤버로 들어가게 된 것은 특별하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젊은 일본의 모임>이 1958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대를 표명하였지만, 이 모임 가입이 당시의 이시하라가 정치적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이해될 수는 없다. 마우즈미, 아사리, 에토 등은 이후 이시하라와 함께 보수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시하라와 에토 등은 법안과 조약 개정에서 의회의 민주적 운영에 초점을 두었으며, 다른 문화인들의 안보조약 자체에 대한 반대에 위화감을 느끼고 모임에서 탈퇴한다(佐野真一, 2003: 324). 다만 <젊은 일본의 모임>은 이시하라가 작품에서 보여준 개인적 차원에의 관심을 넘어서는 사회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른 동료 문화인들과 교류하는 출발점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시하라는 1968년에 36세에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 그는 제8회 참의원선거에 자민당 전국구로 출마해 3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며 최다 득표의 기록으로 화려하게 정계 진출에 성공한다(石原慎太郎, 1999a: 77). 이시하라는 1967년 베트남전쟁의 취재를 다녀온 후 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 정계에 진출할 결심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石原慎太郎, 1999a: 7-28). 문예가로 이름을 알린 후 정치의 길로 들어섰을 때 왜 정치를 택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일관되게 문예든 정치든 모두 자기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72-77). 그는 문예가로서도 정치가로서도 기성질서에 대한 반항과 비판을 자기표현의 주된 부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관된 면을 보이고 있다.

2.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와 이시하라 신타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이 직업으로서의 정치이며 문예의 직업과 특별하게 상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예가로서 수행하던 기성제도에 대한 비판을 정치가로서 지속하는 자신의 정치 활동에 이시하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기표현이 정치의 본질이 될 수 있느냐는 미시마의 이시하라에 대한 비판은 이시하라의 자기표현 정치의 근본적 한계를 함의하고 있다.

미시마와 이시하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25년생으로 1946년부터 문예활동을 시작한 미시마는 이시하라의 문예계 선배로서 이시하라의 문예계 등단 이후, 둘 사이에는 많은 지적 교류가 있었다. 둘 사이에는 전후체제의 극복이라는 목표지점과, 헌법개정과 핵무장이 전후체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했다. 미시마는 사망 전 이시하라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이시하라의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듣고 ‘핵무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모르니 당신이 전담하고, 헌법개정은 내가 담당하겠다’는 분업을 제안하였다(中央公論編集部, 2010: 79). 즉 미시마와

이시하라는 전후체제 극복을 위한 헌법개정과 재군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시마는 이시하라의 정치활동의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1970년 6월 11일 『마이니찌신문(毎日新聞)』에 미시마는 「사도에 대해서 — 이시하라 신타로 씨에게의 공개장(士道について—石原慎太郎氏への公開状)」을 기고하였다. 이 기고문에서 미시마는 ‘무사도에서 본다면 윗사람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할복해 죄를 씻어야 하는 일로서, 자민당원이 자민당을 비판하는 행위는 불충한 행위이다’라고 이시하라를 비판하였다(石原慎太郎, 1999a: 187-210). 이시하라는 현대민주주의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자당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해 무사도를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中央公論編集部, 2010: 79). 이시하라는 미시마의 자신에 대한 비판을 개인적 차원의 시기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시하라는 미시마가 참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정치계에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선수를 뺏겨 정계입문의 기회를 놓쳐서 개인적 시기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78-80). 1970년 지면에서 벌어진 미시마와 이시하라의 논쟁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속에서 사고하는 이시하라와 전통적 충(忠)의 세계에서 사고하는 미시마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미시마의 이시하라에 대한 비판은 현대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미시마의 눈에는 이시하라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였다. 미시마가 보기에 정치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한 집단적 행위에서 자신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미시마에게 정치는 ‘자기 희생’의 행위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시마의 이시하라에의 공개비판은 이시하라가 제도권 내에서 벌이는 정치행위가 자기만족을 넘어서는 대의를 위한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²

자기희생과 자기표현으로 대변되는 미시마와 이시하라의 대립된 정치관은

2. 에토 준도 이시하라에게 “정치는 문예와는 달리 허영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시하라의 자기표현의 정치관에 의문을 품고 있다(江藤淳, 2004: 223-224). 에토 준의 지적은 미시마의 비판과 유사한 지점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정치적 인생을 규정짓고 있다. 자기희생을 극단적으로 밀고나간 미시마는 1968년 민병대 〈방패회(楯の会)〉를 조직하여 우익쿠데타를 구상하였고, 결국 1970년 11월 25일 자위대 동부방면 총감부에서 자위대의 쫓기를 촉구하다 할복자살하였다(中川右介, 2010). 미시마는 전후체제 비판을 실천하기 위한 체제전복을 시도한 것이다. 이시하라는 미시마의 이러한 극단적 체제전복 시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시하라는 〈방패회〉 활동 자체에도 부정적이었고, 그가 주장했던 쿠데타모의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³ 미시마가 자신이 만든 허구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이시하라의 판단은 설득력이 있다(中央公論編集部, 2010: 81). 다만 전후체제의 비판을 체제전복을 통해 실천하고 이를 위해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미시마의 논리는 이시하라의 모순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미시마와의 비교 속에서 이시하라의 자기표현의 정치방법이 전후체제 극복이라는 이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란카이(靑嵐會)〉와 이시하라 신타로

이시하라의 자기표현의 정치는 1970년대 〈세란카이(靑嵐會)〉의 활동을 통해 확실한 내용의 구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데탕트 시대 다나카 내각의 대중유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여 자민당 내 강경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던 〈세란카이〉를 통해서 이시하라는 자신의 정치적 사고를 더욱 성장시키고 또한 널리 파급시키는 기회를 얻었다.

1972년 참의원 의원직을 사직하고 중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다시 자민당으로 복당한 이시하라는 1973년 나카가와 이치로(中川一郎),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하마다 고이치(浜田幸一), 나카오 에이치(中尾栄一),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 등과 함께 〈세란카이〉를 결성

3. 1969년 말 차년도 수상의 시정연설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사토내각의 관방장관 호리 시게루(保利茂)가 이시하라 신타로, 미시마 유키오, 곤 히데미(今日出海) 삼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였다. 미시마가 사토내각이 친위쿠데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이시하라는 아연실색하였다(石原慎太郎, 1999a: 188-189).

하였다. 결성 당시의 멤버는 중의원의원 26명, 참의원의원 5명으로, 소속파벌을 초월하는 정책집단이였다. 소속파벌을 초월하여 결성되었지만, 당시 수상이었던 다나카의 파벌과 외상이었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의 파벌에 속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세란카이>가 반다나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란(靑嵐)은 한냉전선의 의미로 혼돈스럽고 정체되어 있는 정계에 상쾌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로 이시하라에 의해서 작명되었다(河内孝, 2009: 26). <세란카이>는 1973년 7월 10일 뉴오타니 호텔에 모여 결성식을 갖고 대표에 나카가와, 좌장에 나카오, 간사장에 이시하라, 사무국장에 하마다를 배치하는 임원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이시하라의 제안을 받아 혈판서를 작성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河内孝, 2009: 22-25).

현대에 찾아보기 힘든 혈판서 작성의 일이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세란카이>는 자민당 내의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자민당 내의 우익집단’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세란카이>의 결성동기는 다나카 내각의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와 대만과의 국교단절에 있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다나카 내각의 외교노선에 반대하여 1973년 대만에 ‘중화민국국교단절1주년방문단’을 파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자민당 의원의 북한방문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河内孝, 2009: 84-102).⁴ 중일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던 자민당 내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アジア・アフリカ研究会)> 등의 역할에 힘입어 중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인 것인 <세란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란카이>의 외교정책의 관점은 당시 중일관계 개선을 지향했던 다나카, 오히라 파벌에 반대하는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파벌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있다(박철희, 2011a: 174). 하지만 <세란카이>는 한발 더 나아가 헌법개정, 관료화 타파, 국민교육 강화와 같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적 선전운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익적 성향이 다분한 제도정치권 내의 돌출적 집단이라 할 수 있다.

4. <세란카이>의 친한반북적 성향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기 출몰이 줄어들면서 강화되었다는 의심이 당시 일본 미디어에 보도되었다(河内孝, 2009: 30-31).

〈세란카이〉 내에서 이시하라는 출신배경이 다소 상이한 인사였다. 창립멤버 중 이시하라와 나카야마를 제외한 다른 인사들은 모두 농촌권에 배경을 두고 있던 의원들로서 미가(米價) 결정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초선에서 4선의원들의 모임으로 대표급의 인사들이 각 성청의 정무차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은 〈세란카이〉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자민당 내 입지강화를 주로 의도하였다(河内孝, 2009: 50-58). 반면에 이시하라는 자민당 내 파벌체제 속에서 자신의 전후체제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정치적 토대가 필요하였고, 이에 농본주의적 성향을 지닌 인사들과 연대하였던 것이다(河内孝, 2009: 42-45). 이시하라의 ‘로맨티시즘’과 농본주의적 성향을 지닌 농촌출신 의원들의 ‘상승지향의 욕구’가 만난 것이 〈세란카이〉였다.

〈세란카이〉는 자민당과 의회에서 반다나카의 성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선전과 대중집회개최를 이용하였다. 1974년 1월 전국 각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광고에서 〈세란카이〉는 ‘자유の大膽을 버리고 공산주의의 중국에 아부하는 일본을 허용할 수 없다. 혼을 잃은 정치를 〈세란카이〉는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대중적 동원을 시도하였다(河内孝, 2009: 103-104). 이러한 대중적 접근을 통해 당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세란카이〉의 시도는 〈세란카이국민집회〉 개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1974년 1월 일본무도관에서 개최된 이 국민집회에 2만명의 대중이 운집하면서 〈세란카이〉는 자민당 내의 입지를 강화하였다(河内孝, 2009: 106-107).

〈세란카이〉 활동에서 이시하라의 정치적 사고의 내용과 기법의 토대가 잘 드러나있다. 헌법개정, 관료화 타파, 국민교육 강화 등의 이시하라의 정치적 관점이 〈세란카이〉에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대중적 선전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여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려는 정치수법도 향후 이시하라의 정치수법과 일치한다. 1970년대 정치적 영향력을 빨리 키워 정계의 실력자로 나아가 총리를 꿈꾸던 이시하라에게 다나카파, 후쿠다파, 오히라파, 미키파, 나카소네파 등의 파벌 간의 권력관계로 딱 짜여져 있는 자민당의 조건은 그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매우 큰 구조적 한계였다. 이시하라에게 〈세란카이〉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란카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비전의 내용과 수법을 숙련시키는 정치훈련의 장이기도 하였다.

〈세란카이〉는 1974년 다나카 수상의 사퇴 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후쿠다, 오히라의 수상재임으로 이어지는 1970년대 일본 정치사에서 힘을 잃게 된다. 자체적 파벌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란카이〉는 다나카 내각 시절 보수 우파의 입장에 서있던 후쿠다파의 별동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박철희, 2011a: 174). 〈세란카이〉의 연속선상에서 자체 파벌 형성의 시도는 1979년 오히라 내각 하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참패한 후, 나카가와를 파벌영수로 하는 〈자유혁신동우회(自由革新同友会)〉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그때까지 파벌에 속해있지 않던 이시하라는 나카가와파의 형성에 적극적이었다(河内孝, 2009: 175-178). 하지만 〈자유혁신동우회〉는 후쿠다파와의 차별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당내 권력기반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1983년 이시하라가 〈자유혁신동우회〉를 잠시 이끌었지만, 곧 7인 정도만이 남게 되어 후쿠다파에 합류하고 만다. 1970년대 이시하라는 〈세란카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자민당 내 파벌구조 속에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체제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표현의 정치는 이시하라의 자민당 내 비주류적 위치를 고착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했다.

IV. 도쿄 도정(都政)과 이시하라 대망론

1. 중의원 사퇴와 도지사 출마

정치 활동을 하는 동시에 저술활동을 지속한 이시하라는 1989년 소니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盛田昭夫)와 대담집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NO」と言える日本)』을 통해서 일본의 지적 담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는 미일관계의 비대칭적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대일관에

인종주의적 편견이 있으며, 이제는 아시아와의 (물론 일본 중심적) 연대를 통해 미국일본도의 대외관계에 변화를 주어여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盛田昭夫·石原慎太郎, 1989). 이처럼 이시하라의 자기표현은 저술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일본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었지만, 1990년대의 정치적 환경에는 그가 자기표현을 정치적 성공으로 승화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정치활동 내내 자민당 내의 파벌구조 속에 비주류적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미 1976년 환경청장관을 역임하고 1987년 운수대신을 역임한 이시하라가 1990년대에 목표하는 것은 총리가 되어 자신의 정치적 사고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인 그가 자민당 내에서 대표로 옹립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미 1989년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여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자민당에 비해 덜 보수적인 비자민연립정권의 등장은 일본정치 전체에서 보수강경의 사고를 대변하는 이시하라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시하라는 하나의 정치적 도박을 감행한다. 1995년 4월 14일 국회의원 재직 25년 표창 기념 국회연설 도중 돌연 의원사직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지금 일본은 국가로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남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나 실은 남자의 능력을 상실한 거세된 환관과 같은 국가이다. 그것을 관료에 의한 정치지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 책임은 그것을 방치해둔 우리 모든 정치가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佐野真一, 2003: 400). 이시하라의 사퇴연설문은 자민당을 장악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는 그의 정계입문예의 포부가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민당 내 비주류의 상황에서 고전해온 이시하라의 좌절감이 담겨있는 의원직 사퇴였다. 하지만 이시하라의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좌절에 대한 울분만으로 감행된 것은 아니다. 그가 의원사퇴를 극적으로 밝히기 5일 전 아오시마 유키오(青島幸男)가 무소속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이시하라가 아오시마의 당선을 보면서 차기 도쿄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가 굳히고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관측이 이미 당시에 나오고 있었다(佐野真一, 2003: 402).

이시하라가 자기표현 정치의 무대로 도쿄도지사직을 염두에 둔 것은 1970

년대부터이다. 1975년 삼선을 노리는 미노베 료기치(美濃部亮吉)에 대한 자민당의 대항마로 입후보했던 이시하라는 대패하고 만다. 미노베는 이시하라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는 선거전략을 내세웠고, 이시하라는 그러한 선거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회고한다(石原慎太郎, 1999a: 288). 이시하라가 정계에 입문한지 7년만에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것은 자민당 내 비주류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파벌의 권력구조에서 벗어난 선출직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그의 중의원직 사퇴도 1999년 도쿄도지사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관점도 이러한 판단에서 추측되고 있다(佐野真一, 2003: 401).

이시하라는 1999년의 도쿄도지사 선거를 매우 호의적인 환경 속에 맞이한다. 의원직 사퇴 후 1996년에는 1987년 사망한 동생 유지로를 테마로 한 『제(弟)』를 발표하고 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石原慎太郎, 1999b). 또한 미디어에 꾸준히 출현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던 이시하라는 1999년 도쿄도지사 선거에 현직 아오시마 도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이시하라는 후보 등록의 마지막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신비주의 전략을 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출마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효과적 선거운동 전략을 취하였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27-33). 하지만 이시하라는 이미 도지사 출마를 사전 준비하고 있었다. 히토쓰바시 후배들과 <히토쓰바시종합연구소(一橋総合研究所)>의 연구모임에서 교류하며 도쿄도지사 출마에의 준비를 실행하고 있었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77-79). 이시하라가 출마의사를 끝까지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자민당 중앙당은 국제연합 사무차장을 역임한 아카시 야스시(明石康)를 추천하고, 자민당 도쿄연맹의 일부가 가키자와 고지(柿沢弘治)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를 지지하며 분열된 상태에서, 이시하라는 민주당 추천의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를 여유 있게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다.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선거기법의 전략의 덕도 있었으나,⁵ 도쿄도정의 관료주의의 타파하겠다는 그의

5. 이시하라는 출마표명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첫마디로 ‘이시하라 유지로의 형입니다’라는 문구를 선택하였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34).

주장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시하라는 도쿄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다.

2. 도쿄 도정의 성격

이시하라의 도쿄 도정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조합 속에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성격을 갖는다. 실버버스 제도 개혁이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띠었고,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야기한 대만 전 총통 리덩후이(李登輝)의 초청, 미국에 대립하는 요코타(横田) 미군기지 반환 요구 등은 신보수주의적 성향을 띤다.⁶ 노인에게 무료였던 버스이용을 연간 1천 엔으로 유료화하고 도쿄도복지개혁추진플랜(東京都福祉改革推進プラン)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주는 그의 복지개혁은 공공시설 이용에서 선택의 자유와 수급자 비용부담의 신자유주의적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浅井春夫, 2002). 하지만, 도쿄도의 복지개혁으로 인한 복지축소는 그 주체가 지자체인 이상, 축소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선택적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시하라의 도쿄 도정의 진행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한편 이시하라의 신보수주의적 성향의 행동들 중 요코타 미군기지 반환의 문제는 생활과 연결되는 면에서 도쿄 도민들에게 높은 지지가 있었지만(浅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168-1170), 여타의 리덩후이 초청이나 그로 인한 이시하라와 중국 정부와의 마찰 등의 문제는 도쿄 도민들에게는 도지사에게 기대하던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시하라의 초기 도정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는 그의 신자유주의적 또는 신보수주의적 성향의 정책과는 큰 상관성이 없다. 그의 인기는 중앙정부와의 대립각 속에 지방자체인체의 자율적 정책실행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과정에 반하는 정책들을 실행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시하라

6. 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와 분권화를 통한 작은 정부 지향의 의미를 띠고, 신보수주의는 일본에서 헌법개정과 재군사회를 포함한 대외관계에서의 일본 국가의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에 관해서는 渡辺治(2007)를 참고.

는 외형표준과세 신설과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에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시하라 도쿄 도정의 초기 이러한 성격에서 일본 대중들은 그를 실천하는 개혁적 리더십의 상징으로 인식하였고, 이시하라는 처음으로 거대담론의 제공자가 아닌 구체적 정책담당자로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시하라가 2000년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외형표준과세의 신설은 부지사와의 협의 없이 소수의 실무 집행자들만 아는 상태로 준비되었다. 2000년도부터 도쿄도에 영업사업장이 있는 자금량 잔고 5억 엔 이상의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불량채권처리 이전의 업무이익에 5년을 시한으로 3%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외형표준과세의 내용이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96). 외형표준과세는 지방세법 72조의 현행사업세의 과세기준의 특례규정에 착안한 것이다. 72조 19항에는 전력, 가스 등의 4업종을 제외하고 자치체가 ‘사업의 상황에 따라’ 사업세 이외에 외형표준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시하라는 도쿄도의 적자재정의 문제를 은행권에 대한 신설과세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은행권은 불량채권처리의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어서, 적자법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로금리 상태에서 은행들은 영업이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불량채권으로 인해 적자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외형표준과세는 1990년대 장기불황의 원흉으로 지목 받아 온 금융권에 대한 일본 대중의 반감을 적절히 이용하여, 세수를 증가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96-97). 외형표준과세에 대해서 대장성은 경제정책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다며 반대하였다. 지방세의 항목에 독자과세의 조문이 들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이었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113). 하지만 도쿄도의 외형표준과세에 대한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의 폭넓은 호응과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통해 도쿄도의 외형표준과세는 도입되게 되었다. 비록 은행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3%의 과세율이 불공평하다는 재판결과로 인해 실질적 세수증가는 없게 되었지만, 중앙 관료의 규제 속에 침체된 일본 정치경제시스템을 지방주권의 시점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이시하라의 도정에 대한 대중의 높은 지지는 그의 이와 같은 반중앙관료적 개혁의 모습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시하라의 도정에 대한 폭넓은 대중 지지를 가져온 다른 정책은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정책이다. 아오시마 전 도지사의 정책을 이어받아 이시하라는 환경도시 형성을 위한 핵심으로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도쿄도 차원의 정책입안을 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 2000년에 환경확보조례를 제정하여 미립자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디젤자동차는 신차등록 후 7년 경과 후에는 주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143-145). 하지만 정부가 정한 디젤자동차 규제보다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솔린자동차에 비해 적은 디젤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화할 뿐이라는 반론이 중앙 정부와 업계 단체에서 속속하였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146-148). 하지만 이시하라의 이러한 생활자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정책들은 도쿄 도민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첫 번째 도쿄도지사 임기 동안 그는 중앙정부의 규제망을 엮매이지 않고 정책수요자에 혜택이 가는 정책들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그의 인기가 2003년 70%의 득표율을 얻으며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⁷ 이는 2000년대 초반 이시하라가 우익적 성향의 정치사상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거침없이 전후 체제를 비판하던 이시하라의 역동적 스타일이 자신의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의 관료집단과 업계단체들을 상대로 펼쳐졌을 때, 그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높아진 것이다.

7. 스키타 아츠시(杉田敦)는 이시하라의 인기를 ‘생활보수주의’의 대두로 이해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후보인 이시하라에게 압도적 지지를 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佐野真一, 2003: 423).

3. 이시하라 대망론의 부상과 좌절

2000년대 초반 도쿄도지사로서 그의 높은 인기는 이시하라 대망론이 부상하는 배경이 된다(竹村健一, 2000; 藤井巖喜, 2000). 1990년대 후반 이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竜太郎), 오부치 게이조(小淵恵三), 모리 요시로(森喜朗)의 자민당 정권은 일본 대중들에게 개혁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2001년 많은 기대를 받고 등장한 고이즈미 정권이 만약 실패한다면 그 대안으로 총리직을 수행할 정치지도자는 이시하라 뿐이라는 것이 이시하라 대망론의 요지이다(福田和也, 2003: 4-14). 이시하라 대망론의 문제점은 고이즈미가 실패하여야 이시하라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만약 고이즈미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시하라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기본적 정치상황이 존재했다. 자민당 내에서 성공적 정치지도자가 등장한다면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의 모습만 보여왔던 이시하라에게 자민당 정치인들이 도움을 청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자민당 내에서 기성 질서와 제도를 전면적으로 비판해온 이시하라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佐野真一, 2003: 456-457).

이시하라 대망론은 고이즈미의 성공으로 인해 좌절되고 만다. 취임 초 2001년 86%에 달하던 고이즈미에 대한 지지율은 50% 내외를 오가다 연금 미납문제가 불거진 2004년 최저로 38%를 기록했지만 우정선거 후 60%를 회복하였으며, 2006년 퇴임 당시에도 48%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였다.⁸ 또한 고이즈미는 자민당을 파괴하겠다는 자신의 취임 발언에 걸맞은 구조개혁을 통해 자민당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익유도형 정치의 근간이 되는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의 재분배 기제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内山融, 2007).⁹ 이러한 고이즈미의 성공은 이시하라에게 있어 총리직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기회를 빼앗은 것이 되었다. 2003년 이시하라의 재선 당시 이시하라의 정치

8.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의 지지율 추이 집계.

9. 이시하라는 고이즈미에게 파괴를 하려면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207-208).

적 미래는 밝은 것으로 보였으나, 고이즈미의 성공으로 이시하라의 기회는 사라져 갔다.

2003년 이후 도쿄 도정에서 이시하라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도쿄발 금융개혁과 도쿄올림픽 유치이다. 도쿄발 금융개혁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용자해주는 금융기관을 도쿄도가 설립하여 도쿄도내의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구상이다(一ノ宮美成 그룹·K21, 2012: 102-131). 이에 입각해 탄생한 신은행도쿄(新銀行東京)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적자 속에 도쿄도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이시하라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日本經濟新聞, 2011/8/4). 신은행도쿄의 사례는 중앙정부의 정책들과는 다른 독자적 지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지지를 획득하던 이시하라의 수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시하라가 2006년 이래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도쿄올림픽 구상에 대해 도쿄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一ノ宮美成 그룹·K21, 2012: 132-165). 하지만 이시하라의 도쿄도는 2016년 유치에 실패하면서 2020년을 목표로 재도전을 선언하였다. 이시하라는 2007년은 3선에 2011년은 4선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도쿄 도정은 더 이상 이시하라의 대중적 지지의 기반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시하라는 2012년 12월 16일에 예정된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을 꿈꾸고 있다. 이시하라는 도쿄도정에서 중앙정계로 돌아와 마지막 정치적 도전을 벌이는 구상을 2010년부터 계획해왔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정치적 제3세력을 창출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이시하라 신당의 토대는 그가 응원단장으로 있었던 소수정당 일어나라이본(たちあがれ日本)이었다. 2012년 10월 25일 전격적으로 도쿄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일어나라이본당을 기반으로 11월 13일 태양당(太陽の党)을 창당하여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4일후인 11월 17일 하시모토 도루(橋本徹) 오사카시장의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와의 합류를 결정하고 해당하게 된다(日本經濟新聞, 2012/11/18). 이시하라는 하시모토와의 연대를 오래전부터 고대하여왔는데, 그것은 본인만으로는 중앙정치에 유의미한 충격을 주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¹⁰

V. 이시하라적 정치수법의 성격과 한계

1. 의미 전달의 능력과 저항의 미학

이시하라에 대한 일본 대중의 지지는 그의 전후체제 비판과 극복의 내용 못지않게 그의 정치수법의 매력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는 문예가와 정치가 모두 언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논리로, 자신의 정계 입문을 정당화하였다. 그는 ‘문학이 언어의 세계인 것처럼, 정치도 결국은 언어의 세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정치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中曾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73). 때문에 그는 ‘언어명료, 의미불명’으로 불렸던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와 같은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에 있어서 언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시하라의 인식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명쾌하면서도 논쟁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대중의 논란이 될만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왔고,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언어 사용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竹村健一, 2000: 76-79).

언어를 강조하는 이시하라는 정치에서 프레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논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틀이 되는 프레임을 자신의 이념과 정책이 강조될 수 있는 것으로 짤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조지 레이코프, 2007). 이시하라 본인이 1975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미노베가 파시스트의 프레임으로 선거구도를 몰아간 것에 대해 씩씩해 하면서도 그 프레임의 효과성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石

10. 이시하라와 하시모토의 연합체인 일본유신회는 2012년 11월 29일의 일본경제신문사 여론조사에서 집권 민주당의 13%보다 높은 15%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12월 총선거에서의 약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日本經濟新聞, 2012/11/29).

原慎太郎, 1999a: 288). 1999년의 도쿄도지사선거에서 이시하라는 거물 후보인 자신과 군소후보 6명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어 선거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였다(淺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33). 프레임 선점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정치인인 고이즈미의 성공으로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이시하라 대망론이 대중과 미디어에 회자되도록 만든 것도 그러한 예가 된다.

한편 이시하라는 『태양의 계절』을 통해 보여주었던 기성 제도에 대한 저항적 자세의 이미지를 정치활동 내내 유지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지속시켰다. 『태양의 계절』을 통해 이시하라는 이차대전 후 1950~60년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기성 질서에 대한 ‘이유없는 반항’의 청년문화를 일본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작가이다. 기성문인들이 1950년대에 문단에 새로 진입한 청년문인들을 ‘분노의 세대’로 부르는 것에 대해 이시하라와 동년배의 문인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시하라는 그러한 호칭에 대해 거리낌없이 수용하였다(Sherif, 2005: 206). 이시하라의 이러한 자세는 그가 정치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도정치권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연결된다. 그의 문예활동과 정치활동의 공통점은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이다. 미시마의 비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시하라의 저항이 진정한 저항인지는 의문이지만, 그의 이러한 공격적 저항 태도는 이시하라의 인기의 배경임에는 분명하다. 이시하라의 저항은 남성중심적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폭력적 성격이 있다(齋藤貴男, 2003: 91-122). 주목할 점은 많은 일본인들이 현대적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이시하라의 저항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자신들은 해보지 못했던 거침없는 자기표현의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이시하라가 소비 또는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 정치불신 시대의 이단아적 리더십

거침없는 자기표현을 하는 이시하라가 일본 사회에 수용되는 현상은 일본

사회의 병리현상을 보여준다. 이시하라가 대표하는 배타적 자국중심적 정치적 사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주목하면 이시하라적 현상에서 일본 사회 우경화의 문제점이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시하라가 수용되는 것은 단지 그의 자국중심적 배타성의 성향에 대해 일본 대중이 동의하기 때문은 아니다. 자국중심적 사고에 대한 지지보다는 기성 질서의 파괴에 대한 일본의 많은 대중들의 암묵적 지지가 이시하라가 일본 사회에 수용되는 보다 더 큰 배경이 된다.

이러한 이시하라적 현상은 정치불신의 문제에 봉착한 일본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정치불신의 심화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탈물질주의의 가치가 대두된 서구 선진국에서 정치에 냉소적인 무당파층이 증가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Inglehart, 1990). 일본에서의 정치불신의 지표인 무당파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2000년대에 들어서는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정치불신의 원인으로는 여타의 서구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대두와 함께, 정치스캔들에 대한 피로감, 제도정치권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불신의 시대에 대중은 정치에 냉소적이 되고 제도권을 파괴하겠다는 정치적 이단아에게 정치적 지지가 쏠리기 쉽다. 이러한 정치불신의 시대에는 포퓰리즘적 정치인이 대두되는 경향이 있다(大嶽秀夫, 2003). 자민당 내 주류라고 보기 어려운 고이즈미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정치불신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최근의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에 대한 대중적 인기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吉富有治, 2011). 이시하라도 이러한 정치불신의 시대를 배경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정치불신 시대 이러한 이단아적 정치리더십에 매력을 느끼는 대중들은 기성제도에 대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표현의 정치적 통로가 부재한다고 여기고 있는 이들이다. 이시하라는 일본인들이 자기주장을 하는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石原慎太郎, 2011: 133), 그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인들의 자기주장의 소극성은 기성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될 의사반영의 통로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시하라의 비판대상인 ‘자기표현 없는 일본인들’의 정치적

불만이 이시하라가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왔다.

이시하라는 자기표현이 힘든 일본 사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은 일본 사회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단 아적 성향으로 손쉽게 얻어낸 대중의 지지를 본인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던 정치적 성공으로 전환하지 못한 본인의 정치수법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기성제도의 파괴를 꿈꾸는 이단아는 체제전복의 혁명의 길이 아니라면, 기성제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에 자신의 목표실현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정치권에서 자신의 정치세력화의 작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시하라의 충동적이고 독선적인 개인적 성향은 정치적 주류집단 속에서 세력을 조직화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로 작용하였다(齋藤貴男, 2003: 31-58).

VI. 결론

이시하라는 미시마와 같은 체제전복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면서 동시에 나카소네처럼 자민당 주류를 성공적으로 포섭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성제도에 융합하려는 시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기성제도를 비판하는 강한 자기 주장 속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그 정치 수법의 한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시하라야 말로 그가 평생 동안 비판하였던 일본 전후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전후체제로 구축된 기성질서를 비판하면서 대중으로부터 지나친 애정을 받았다. 사회적 안정성의 토대가 되는 전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계획과 조정을 수행해온 엘리트들에게 요구되었던 의무와 전후체제 속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많은 일반 대중에게 요구되었던 의무에서 모두 벗어나 있던 존재가 이시하라이다.

이시하라의 남성주의적 사고는 일본과 주변국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이시하라의 남성적 성향이 전후 일본을 바라 보

는데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일본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차원에서 모두 활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대변화의 흐름에서 주체적 결정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는 현대 일본 사회에 중요한 조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적극성의 주체에 모든 개인이 포함되는 주체의 보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화가 되는 한, 적극적 주체적 결정은 공동체의 발전이 아닌 통제 속에 닫힌 파놉티콘만을 만들 뿐이다. 또한 이시하라의 자국중심주의 사고로는 그가 주장하는 아시아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전전의 일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자리 잡기가 갈수록 곤란한 환경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시하라적 사고는 일본의 국제정치적 적절한 위상 찾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시하라와 같은 지도자는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정치공동체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 이시하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민주적 공공성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시하라와 같은 사고를 갖는 정치인이 대두되는 것을 막는 공급 측면의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시하라와 같은 지도자가 대두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정치의 수용자인 대중들이 보다 수월하게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투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요 측면의 대처일 것이다. 정치불신이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정치불신을 야기하는 정치적 소통구조의 문제를 극복하여 이시하라와 같은 지도자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여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채수. 2008. 『일본우익의 활동과 사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레이코프, 조지. 나익주 역. 2007.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 파주: 창비.
- 마쓰모토 겐이치. 요시카와 나기 역. 2009. 『일본 우익사상의 기원과 종언』.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박철희. 2011a. 「일본보수정치세력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갈등－1960년대와 1990년대의 비교」. 『일본연구논총』 제33호 pp. 159-188.
- _____. 2011b. 『일본 보수세력의 보통국가론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_____. 2011c.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시하라 신타로. 고평국 역. 1978. 『태양의 계절』. 서울: 범우사.
- _____. 이용덕 역. 2004. 『선전포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경제－미국 금융노예로부터의 해방』. 서울: 제이앤씨.
- 『日本經濟新聞』
- 一ノ宮美成. 그룹·K21. 2012. 『黒い都知事石原慎太郎』. 宝島社.
- 河内孝. 2009. 『血の政治－青嵐会という物語』. 新潮社.
- 吉富有治. 2011. 『橋下徹 改革者が壊し屋か－大阪都構想のゆくえ』. 中央公論社.
- 江藤淳. 2004. 『石原慎太郎論』. 作品社.
- 佐野真一. 2003. 『てっぺん野郎－本人も知らなかった石原慎太郎』. 講談社.
- 斎藤貴男. 2003. 『空疎な小皇帝－「石原慎太郎」という問題』. 岩波書店.
- 盛田昭夫·石原慎太郎. 1989. 『「NO(ノー)」と言える日本－新日米関係の方策』. 光文社.
- 石原慎太郎. 1997. 『「父」なくして国立たず』. 光文社.
- _____. 1999a. 『国家なる幻影－わが政治への反回想』. 文藝春秋.
- _____. 1999b. 『弟』. 幻冬舎.
- _____. 2000. 『「アメリカ信仰」を捨てよ－2001年からの日本戦略』. 光文社.
- _____. 2008. 『私の好きな日本人』. 幻冬舎.
- _____. 2010. 『真の指導者とは』. 幻冬舎.
- _____. 2011. 『新·墮落論－我欲と天罰』. 新潮社.
- _____. 田原総一郎. 2007. 『日本の力』. 文藝春秋.
- 浅井春夫. 2002. 『石原慎太郎の「福祉改革」を徹底解剖する－国の政策を先取りする「東京発!市場原理福祉」』. あけび書房.
- 浅野史郎·石原慎太郎研究グループ. 2000. 『石原慎太郎の東京発·日本改造計画』. 学陽書房.
- 大嶽秀夫. 2003. 『日本型ポピュリズム－政治への期待と幻滅』. 中央公論社.

- 竹村健一. 2000. 『石原慎太郎-日本を変えるリーダーシップ』. PHP研究所.
- 中央公論編集部. 2010. 『中央公論特別編集 三島由紀夫と戦後』. 中央公論新社.
- 中川右介. 2010. 『昭和45年11月25日-三島由紀夫自決、日本が受けた衝撃』. 幻冬舎.
- 中曽根康弘・石原慎太郎. 2001. 『永遠なれ、日本-元総理と都知事の語り合い』. PHP研究所.
- 渡辺治. 2001. 『日本の大国化とネオ・ナショナリズムの形成: 天皇制ナショナリズムの模索と隘路』. 桜井書店.
- _____. 2007. 『安倍政権論: 新自由主義から新保守主義へ』. 旬報社.
- 藤井巖喜. 2000. 『石原慎太郎総理大臣論-日本再生の切り札』. 早稲田出版.
- 内山融. 2007. 『小泉政権: 「パトスの首相」は何を変えたのか』. 中央公論新社.
- 福田和也. 2003. 『石原慎太郎「総理」を検証する-国民に「日本大乱」の覚悟はあるか』. 小学館.
- 本多勝一. 2000. 『貧困なる精神N集-石原慎太郎の人生』. 朝日新聞社.
- 鈴木邦男. 1988. 『新右翼-民族派の歴史と現在』. 彩流社.
- _____. 1993. 『脱右翼宣言』. アイビーシー.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k, C.H. 2011. “Conservative Conceptions of Japan as a ‘Normal Country’: Comparing Ozawa, Nakasone, and Ishihara.” In Y. Soeya, M. Tadokoro, and D.A. Welch (Eds.), *Japan As A ‘Normal Country’? A Nation in Search of Its Place in the Worl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 98-120.
- Sherif, A. 2002. “The Politics of Loss: On Eto Jun.” *Position: East Asia Cultures Critique*, 10(1): 111-139.
- _____. 2005. “The Aesthetics of speed and the illogicality of politics: Ishihara Shintaro’s literary debut.” *Japan Forum*, 17(2): 185-211.

The Catharsis of Masculine Self-Expression: Ishihara Shintaro's Maverick Leadership

Jung-Hwan Lee

Assistant Professor,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Kookmin University

While Ishihara Shintaro has maintained popularity as an icon of the Japanese conservatism among the masses in contemporary Japan, he was unable to fulfill his political ambition to gain the governing power in the postwar political system. He, as a writer and politician, has successfully sustained his popularity, keeping his image of resistance to the established system. The main characteristic of his resistant stance is the unrestrained self-expression on his admiration for masculinity. Ishihara's popularity originates from the Japanese masses' catharsis on his self-expression.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ordinary Japanese to express their own desires, Ishihara's unrestrained self-expression and desire to destroy the established system has given a feeling of pseudo satisfaction to the Japanese masses. However, his excessive criticism on the established system has become the core factor of his marginal status in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Keywords: Ishihara Shintaro, Japanese conservatism, political outsider, self-expression, masculinity